

#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및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choolers' Intelligent Ability, Reward Choice in Assumed Situation and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혜순\*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Hye-Soon

---

###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dentify intelligent ability, reward choice in assumed situation of delay of gratification, and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00 preschoolers between the ages of 4 and 5, their mothers, and 15 teachers of three day-care centers in Seoul. T-test, F-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by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was significant and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by sex was significant. This means that mothers who had a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were positively related to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Second, in an assumed situation of delay of gratification,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by reward choice was not significant. Third, delay of gratification by intelligent ability was significant. Fourth, the correlation among intelligent ability, reward choice in assumed situation of delay of gratification and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were significant. Finally, preschoolers' 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wo factors: reward choice in assumed situation of delay of gratification and preschoolers' intelligent ability.

---

▲주요어(Key Words) : 지적능력(intelligent ability), 보상선택(reward choice), 가상상황(assumed situation), 만족지연능력(delay of gratification ability)

### I. 서론

만족지연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보다 더 선호하는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재의 만족을 자발적으로 연기하는 능력을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능력이라고 하며,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위해 기다리는 행동자체가 바로 좌절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자발

적인 만족지연은 곧 좌절인내이다(Mischel & Mischel, 1983)라고 개념화 해왔다.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일련의 실험 결과들은 불확실하지만 보다 선호하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이 이후 학동기 및 청소년시기의 자아탄력성, 인지적이고 학업적인 성취, 그리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자아통제능력과 관련되었다(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Opper, 2003; Rodriguez, Mischel, & Shoda, 1989; Shoda, Mischel, & Peake, 1990).

---

\* 주 저 자 : 김혜순 (E-mail : heidi77@dongguk.ac.kr)

국내에서도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중요한 유아기의 능력으로서 만족지연능력, 자기통제력, 자기조절력을 들고 있다(김수혜, 2000; 김혜순·강기숙, 2005; 이경임, 1996; 이정란, 2003; 최은화, 2003).

흔히 만족지연능력이나 자기통제력, 그리고 자기조절력은 그 개념적 정의의 사용에서 혼용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통제력의 구성요소는 순종, 욕구지연, 자기점검이라 할 수 있고(이경임, 1996), 자기조절력은 행동억제와 정서성으로 구성되는 자기통제요인과 자기평가와 자기존중요인으로 구성되는 자기점검요인으로 이해(이정란, 2003)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동억제나 욕구지연 등의 행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족지연능력은 자기통제력이나 자기조절력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은 발달시켜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다(Funder & Block, 1989; Jacobson, Fendrich, Kruesi, & Ziegenhaim, 1996; Mischel et al., 1989; Rha, 1999)라고 강조되어왔다.

다시 말해,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이란 유아가 장차 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유혹에 대한 저항, 욕구의 지연행동, 좌절인내 등의 행동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족지연능력은 자기조절력의 부족, 비행행동, 그리고 중독현상과 같은 심각한 발달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또한 목표 지향적이며 자기내재화와 내적통제의 기능으로 발달되는 능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만족지연능력은 유아기에서부터 개발되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이를 보다 큰 성취에 대한 소망에서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유해한 자극과 위협을 동반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충동적 만족을 지양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을 내재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증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 연구로는 최초로 Mischel과 Ebbesen(1970)의 보상선택의 상황으로 구성된 실험실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Mischel과 Ebbesen(1970)은 지속적으로 만족지연 실험과제를 변형하여 왔다. 그들의 실험연구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몇몇의 연구들(Mischel, W., Ayduk, O., 2002; Mischel & Baker, 1975; Mischel, Ebbesen, & Zeiss, 1972; Mischel & Mischel, 1983; Mischel et al., 1989; Satsuki, 1994; Shoda et al., 1990)은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을 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인지발달이론의 토대가 되어왔다. 즉 인지발달이론적 입장에서는 유아들간의 만족지연능력의

차이는 인지적 성장, 사건을 구조화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개개인의 인지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들 사이의 만족지연능력의 차이는 연령 성숙에 따른 자연적인 인지적 성장에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지적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된다고 설명해왔다.

이외에도 유아의 인지능력의 발달은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유아의 지적 능력은 충동억제 및 내적통제를 이끄는 전략사용의 개발을 이끈다(Bronson, 2000; Kopp, 1989). 그러므로 유아의 인지능력이 만족지연능력이라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사회적인 행동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믿어져왔다. 한편, 인지(Cognition)란 지능, 지적능력, 문제해결력 등의 인간의 사고과정으로 정의(Flavell, Miller, & Miller, 1993)될 수 있으므로 유아의 인지적 변인으로서 지적능력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관련 변인으로서의 지적능력 연구는 최초로 Melikian(1959)이 시작한 이래 최근연구(McCabe, Hernandez, Lara, & Brooks-Gunn, 2000; Miller, 2001; Opper, 2003; Satsuki, 1994)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관련되는 변인으로서 지적능력의 영향력을 밝힌 연구들은 매우 희소하였고, 더욱이 지적능력의 하위영역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 되지 못하였다. 즉, 유아의 만족지연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전략(최은화, 2003)이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행동에 관한 연구(이미라, 1999, 이수연, 1985; 이영미, 1996; 김선하, 1997; 김수혜, 2000), 인지양식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연구(허수경, 이경남, 1996)뿐으로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연구가 우선 양적으로도 활발하지 못하였고, 만족지연능력의 관련변인으로서의 지적변인 연구 또한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만족지연에 관한 주제로서의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은화(2003)의 만족지연능력연구에서는 만족지연능력의 관련변인으로 지적변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김수혜(2000)의 연구에서는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만족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만이 연구되었으며, 김선하(1997)의 연구에서도 가상실제상황에서의 유아의 만족지연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연구되었을 뿐이다. 이영미(1996)의 만족지연에 따른 유아의 행동관찰연구에서 지적능력이 조사되었으나 주요결과에서 지적능력의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지적능력의 하위영역의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는 지적능력검사들이 대부분 집단검사이거나 개인별검사와 하더라도 간편 검사로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개인별 지능검사만큼 개인의 지적능력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관한 내용과 만족지연능력과의

관계까지는 심층 분석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연구에서 보상선택은 매우 중요한 조건적 설정이었다.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의 측정이 보상선택유형으로서 실험실 상황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즉 보다 더 선호하는 보상을 위해 실험 조건에서 제시된 지연시간을 견디 유아는 지연보상을 선택한 것이고, 지연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험자를 부르거나 종을 친 유아 또는 금지된 장난감이나 보상물을 만진 유아는 즉각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경우 유아의 즉각보상 선택은 저조한 만족지연능력을 가진 것으로, 지연보상 선택은 보다 큰 만족지연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져왔다. 즉, 만족지연능력의 결정적 요소로서 보상의 가치와 보상의 발생에 대한 기대가 구분되고, 특정한 행동과정에서 기대되는 유용성을 고려하게 되는 행동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만족지연 실험연구에서 보상선택은 매우 중요한 측정적 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측정되는 보상선택의 유형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유아의 보상선택유형 역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족지연 가상상황에 대한 유아의 보상선택의 유형이 만족지연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혹은 즉각적인 행동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 상상적 사고만을 반영할 뿐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만족지연능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지연주제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김선하(1997)의 연구가 있었으나 연구내용에서 보면 유아의 만족지연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주로 분석되었을 뿐으로 가상상황에서의 유아의 만족지연연구는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비평적 관점에서,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거의 전적으로 임상적 연구에만 의존해왔다. 그것은 목표지향적이고 자기내재화된 만족지연능력연구는 비행행동,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중독 같은 통제의 부족과 관련되는 진지한 발달적, 정신적인 문제들의 예방적 차원에서 실험적 측정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기(Mischel et al., 1989)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실험방법이 아닌 또 다른 연구방법으로서 시도되는 만족지연능력 평정법은 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아들의 양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인들인 어머니들과 교사들이 각각 평정하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평정연구는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이해를 보다 더 확장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하면, 그간 국내에서는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 과 관련된다는 인지적 변인으로서의 지적능력의 연구는 충분치

못하였으며 더욱이 유아의 지적능력이 가상적 만족지연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과 그리고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과의 관계로서 함께 연구된 것은 매우 희소하였다. 또한 유아기 이후의 바람직한 발달 및 성취적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어온 유아기의 만족지연능력은 전적으로 실험방법에만 의존되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내적변인 중에서는 발달변인으로 연령과 성, 지적변인으로 지능을 정하고, 만족지연능력 가상상황 변인으로 보상선택유형을 정해, 우선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및 만족지연능력의 경향성을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지적능력과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을 각각 밝히고자 하며 더 나아가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유아들의 만족지연능력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및 만족지연능력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떠한가?
- 둘째, 유아의 지적능력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은 어떠한가?
- 셋째,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은 어떠한가?
- 넷째,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는 각각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하는 중류 생활수준인 유아들이 많이 취원하는 세 곳의 어린이집에서 임의표집된 만 4세와 5세된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100쌍과 교사들 15명이었다.

연구에 관한 안내문이 배포된 연구대상 만 4, 5세가 있는 세 어린이집 총 129가구 중 108가구가 참가를 희망하였으나, 질문지 미회수, 미비한 자료, 지능검사미 실시 등으로 실제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총 100쌍 이었다. 유아의 연령은 4세 51명(51%), 5세 49명(49%)이다. 성별은 남자가 53명(53%), 여자가 47명(47%)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50명(50.0%)이고 36세에서 40세까지가 36명(36.0%), 41세 이상이 14명(14.0%)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43명(43%), 전문대 및 대학중퇴가 18명(18%), 대졸이상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아, 어머니 (N=100), 교사 (N=15)

	범주	N(%)
유아연령	4세	51(51.0)
	5세	49(49.0)
유아성별	남	53(53.0)
	여	47(47.0)
어머니연령	35세 이하	50(50.0)
	36세~40세	36(36.0)
	41세 이상	14(14.0)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43(43.0)
	전문대 및 대학중퇴	18(18.0)
	대졸이상	39(39.0)
총수입	200만원 미만	30(30.0)
	200이상~300만원 미만	30(30.0)
	300이상~400만원 미만	19(19.0)
	400만원 이상	21(21.0)
어머니직업	사무직	29(29.0)
	전문직	3(3.0)
	자영상공업	8(8.0)
	피고용기능인	10(10.0)
	전업주부	50(50.0)
교사	20~25세	3(20)
	26~30세	10(66)
	30세 이상	2(13.3)

39명(39%)이었고, 가정의 총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0명(3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0명(3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9명(19%), 400만원 이상이 21(21.0%)로,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50명(50%), 사무직 29명(29%), 자영상공업 8명(8%), 피고용기능인 10명(10%), 전문직 3명(3.0%)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은 20세에서 25세가 3명(20%), 26세에서 30세가 10명(66.6%), 30세 이상이 2명(13.3%)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유아의 지적능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적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6)가 국내표준화 작업을 마친 K-WPPSI(한국판 웨슬러 유아용지능검사)의 지능점수로서 유아의 지적능력을 측정한다. 웨슬러 지능검사를 개발한 Wechsler(1974)는 지능을 "유목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그리고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능력 등의 종합적인 또는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K-WPPSI는 만3세-7세 3개월 유아용 지능검사 도구로서 '동작성 검사'와 '언어성 검사'의 하위영역의 소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K-WPPSI에서는 12개의 소검사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웨슬러지능검사에서 통상적으로 지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따라서 동물짜짓기와 문장의 두 보충검사를 제외한 10개의 소검사들이 이용되었다.

### 2)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 유형

가상상황에서 유아의 보상선택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김선하(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Freire, Gorman, Wessman(1980)의 도구가 사용되었다.

만족지연에 관한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을 알기위한 위한 면접은 보다 더 선호하는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는 기다려야만 상황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이때 면접을 하는 유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질문된다. 가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더 선호하는 장난감을 기다리지 않고 덜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로 사겠다는 유아의 응답은 즉각보상으로, 기다렸다가 더 원하는 장난감을 사겠다는 응답은 지연보상으로 분류되었다.

### 3)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지연능력척도는 Olson과 Kashiwar(2000)의 연구에서 최초 개발된 것으로서 Opper(2003)의 연구에서 교사와 부모가 다양한 상황에서 보상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평정할 수 있는 척도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pper의 연구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Opper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어머니용은 Cronbach  $\alpha$ =.87이고, 교사용은 Cronbach  $\alpha$ =.9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어머니용이 Cronbach  $\alpha$ =.83, 교사용이 Cronbach  $\alpha$ =.95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종종 그렇다(4점), 거의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척도에서의 총 점수를 각각 어머니와 교사가 보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으로 본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예비조사는 2005년 5월 25일에서 26일까지 시행되어 만족지연 가상상황에 대한 면접을 임의표집된 유아들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에 관한 자문을 어린이집의 원장들과 교사들에게 구했다.

예비조사를 기초로 수정 보완된 만 4-5세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에 관한 면접과 질문지 수거가 2005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유아용지능검사의 실시가 6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이루어졌다. 연

구취지 및 절차에 관해서 우선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설명을 한 후 연구협조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다시 유아의 부모님들에게 연구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연구 취지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이 어린이집을 통해 유아들의 가정에 보내졌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님들의 유아들에게만 면접 및 지능검사가 실시되고 어머니용 설문지에 관한 협조를 구했다. 어머니용, 교사용 질문지는 어린이집에서 배포 수령한 후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만 4, 5세 유아들 모두 3분에서 4분이었으며 개인별 지능검사는 지능검사 실시 및 해석을 위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동학 석사과정을 마친 두 명의 검사자들에 의해 각 유아당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개인별 검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 11.0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졌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만족지연능력 및 관련변인의 차이를 알기 위해 t-test, F 검증,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그리고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지적능력, 보상선택의 영향력을 알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의 경향성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다음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유아의 지능의 경우, 전체 지능지수의 평균점수는 105.63

<표 2>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00)

유형		M(SD)
지능	동작성지능	107.84(15.09)
	언어성지능	102.19(15.34)
	지능	105.63(15.00)
유형		(N)
가상상황	즉각보상	49
보상선택	지연보상	51
유형		M(SD)
만족지연능력	어머니 평정	29.08(4.55)
	교사 평정	28.14(6.73)

이다. 이러한 지능점수는 이 연령대의 평균 지능에 비추어 봤을 때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박혜원 외, 1996) 그리고 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동작성 지능의 평균점수 M=107.84(15.09)로, 언어성 지능 M=102.19(15.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 유아들은 상식이나 어휘 등 유아가 가진 언어적 능력 측정 점수보다 시·공간 이해능력과 시지각 정보처리에 관한 수행을 측정하는 동작성 지능 측정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및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면 어머니가 평정한 만족지연능력은 M=29.08(4.55), 교사가 평정한 만족지연능력은 M=28.14(6.73)로 어머니와 교사평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에 의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상관계수 r=.29(p<.01)로 매우 유의하였다.

한편,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만족지연능력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표 3> 어머니와 교사 평정에 의한 만족지연능력의 전반적 경향 (N=100)

		어머니 평정 M(SD)	t, F
연령	4세	29.01(4.49)	-.14
	5세	29.14(4.65)	
성별	남	29.09(4.70)	.03
	여	29.06(4.43)	
교육적배경	고졸	27.93(4.14)	4.34*
	전문대학 및 대학중퇴	28.33(4.65)	
	대졸	30.69(4.56)	
총수입	상	27.90(3.64)	1.50
	중	29.69(5.06)	
	하	29.33(4.32)	
		교사 평정 M(SD)	t, F
연령	4세	29.07(6.02)	1.43
	5세	27.16(7.33)	
성별	남	25.96(7.04)	-3.70***
	여	30.60(5.47)	
교육적배경	고졸	28.11(6.27)	2.58
	전문대학 및 대학중퇴	25.22(6.62)	
	대졸	29.51(7.00)	
총수입	상	26.53(5.55)	1.44
	중	29.16(6.94)	
	하	28.05(7.59)	

\*p<.05, \*\*\*p<.001

성별, 어머니 학력, 가정의 총수입에 따라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적 배경에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4.34, p<.01$ ).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의 유아들이 만족지연능력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적 배경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므로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으나 그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연령, 성별, 가정의 총수입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총수입의 분포조사는 4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조사결과 분포의 비율이 200만원 미만인 30%, 등급은 하로, 20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인 30%인 등급은 중으로, 300만원 이상의 40%인 등급은 상으로 각각의 등급을 재분류하였다.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성별, 어머니 학력, 가정의 총수입에 따라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위의 <표 3>에 같이 나타나있다.

<표 3>의 교사평정에 의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보면, 유아의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는  $M=25.96(7.04)$ , 여아는  $M=30.60(5.47)$ 으로 교사가 평정한 만족지연능력은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70, p<.001$ ).

한편,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적 배경, 가정의 총수입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유아의 지적능력과 만족지연능력

유아의 지능검사의 하위영역에 따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동작성, 언어성 지능지수를 K-WPPSI(박혜원 외, 1996) 지침서에 안내된 이론적 정상분포기준에 따른 지능분류기준 7집단을 참조하여 4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표집에서는 우수와 최우수집단을 우수집단으로(동작성: 18%, 언어성: 19%), 평균상(동작성 28%, 언어성 26%), 평균(동작성 41%, 언어성 38%), 평균하, 경계선과 지능결손 분류집단을 합하여 평균하(동작성 14%, 언어성 17%)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지능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1) a, b, c 단권의 다중범위검증으로 다른 문자끼리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4>에 의하면, 지능에 따라 만족지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능지수 120 이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 31.80 ( $SD=4.14$ )을 나타냈고, 110~119에서 29.35 ( $SD=5.20$ ), 90~109에서 28.60( $SD=4.26$ ), 90미만이 26.38( $SD=3.48$ )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능은 유아의 지능집단에 따라서 만족지연능력에 유의한 차이( $F=4.56,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능이 높을수록 충동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행위를 지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나 행동 대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만족지연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에 의하면, 90~109의 지능지수집단은 가장 표준적인 지적능력의 소유자들로서 가장 많은 유아들인 50명이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유아의 지적능력이 분류되고 유아의 지적능력과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위의 <표 4>에 함께 나타나 있다.

<표 4>에 의하면, 지능에 따른 교사평정의 유아 만족지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능지수 120 이상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 32.80 ( $SD=4.14$ )을 나타냈고, 110~119에서 28.82( $SD=5.70$ ), 90~109에서 27.34( $SD=6.81$ ), 90미만이 23.15( $SD=5.40$ )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능은 유아의 지능집단에 따라서 만족지연능력에 유의한 차이( $F=6.92,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능이 높을수록 즉각적인 욕구만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지연에 따른 좌절을 자발적으로 인내하는 만족지연능력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지능은 유아의 지능집단에 따라 어머니평정 및 교사

<표 4> 지적능력에 따른 어머니 및 교사평정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N=100)

		집단구분	만족지연능력 (어머니평정)	F
지능	90미만(N=13)		26.38(3.48) <sup>c</sup>	4.56**
	90~109(N=50)		28.60(4.26) <sup>bc</sup>	
	110~119(N=17)		29.35(5.20) <sup>ab</sup>	
	120이상(N=20)		31.80(4.14) <sup>a</sup>	
		집단구분	만족지연능력 (교사평정)	F
지능	90미만(N=13)		23.15(5.40) <sup>b</sup>	6.92***
	90~109(N=50)		27.34(6.81) <sup>ab</sup>	
	110~119(N=17)		28.82(5.30) <sup>a</sup>	
	120이상(N=20)		32.80(5.72) <sup>a</sup>	

\*\* $p<.01$ , \*\*\* $p<.001$

<표 5> 지적능력의 하위요인 집단에 따른 만족지연 능력 (N=100)

집단구분		만족지연능력 (어머니평정)	t
동작성 지능	상(N=38)	29.73(4.59)	-2.10*
	하(N=37)	27.61(4.16)	
언어성 지능	상(N=43)	31.00(4.69)	-3.48**
	하(N=35)	27.63(3.87)	
집단구분		만족지연능력 (교사평정)	t
동작성 지능	상(N=38)	30.57(6.01)	-3.34**
	하(N=37)	25.55(6.96)	
언어성 지능	상(N=43)	31.14(6.20)	-3.94***
	하(N=35)	25.23(6.87)	

\*\*p<.01, \*\*\*p<.001

평정의 만족지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고 그 결과는 위 <표 4>에 같이 나타나 있다.

한편,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만족지연능력을 인지능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을 상하집단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함께 나타나 있다.

지능의 하위영역인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을 상, 하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상하집단의 분류를 위해서는 유아의 동작성 지능점수와 언어성 지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동작성과 언어성 지능점수가 높은 집단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동작성과 언어성 지능점수가 각각 낮은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5>에서 먼저 어머니평정에 의하면, 동작성 지능에 따라 만족지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집단은  $M=29.73(4.59)$ , 하집단은  $M=27.61(4.16)$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0, p<.05$ ). 언어성 지능은 상집단  $M=31.00(4.69)$ , 하집단은  $M=27.63(3.87)$ 으로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48, p<.01$ ). 따라서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 모두 지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만족지연능력이 높았다.

다음, 교사가 평정한 만족지연능력을 인지능력의 하위요인인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을 상하집단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또한 <표 5>에 함께 나타나 있다.

<표 5>의 교사평정부분에 의하면, 동작성 지능에 따라 교사의 평정에 의한 만족지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집단은  $M=30.57(6.01)$ , 하집단은  $M=25.55(6.96)$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34, p<.01$ ). 언어성 지능은 상집단  $M=31.14(6.20)$ , 하집단은  $M=25.23(6.87)$ 으로 마찬가지로

<표 6>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에 따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N=100)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	어머니 평정 만족지연능력 M(SD) t	
		즉각보상(N=49)	28.36(4.20)
지연보상(N=51)	29.76(4.80)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	교사평정 만족지연능력 M(SD) t	
		즉각보상(N=49)	27.59(6.83)
지연보상(N=51)	28.67(6.66)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94, p<.001$ ). 따라서 교사의 평정에 의한 만족지연에서도 어머니의 평정에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 모두에서 지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만족지연능력이 높았다.

### 3.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에 따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만족지연 가상상황에서의 유아의 보상선택유형에 따른 어머니와 교사평정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t-test를 실시한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먼저 어머니평정에서 가상상황에서 보상선택 유형에 따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즉각보상에서  $M=55.96(8.88)$ , 지연보상에서  $M=58.43(9.33)$ 으로 지연보상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평정에 의한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에 따른 만족지연능력도 마찬가지로 지연보상을 선택하는 유아가 즉각보상을 선택하는 유아보다 만족지연능력 측정점수가 다소간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 4. 지적능력과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지적능력과 가상상황에서 유아의 보상선택유형 및 만족지연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도 지적능력은 동작지능, 언어지능, 지능 모두 .22~.30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과 지적능력은 언어지능과 전체지능에서 .27, .22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과 만족지연능력은 .26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7> 지적능력과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만족지연능력간의 관계 (N=100)

	동작지능	언어지능	전체지능	보상선택 유형	만족지연 능력
동작지능					
언어지능	.31***				
전체지능	.82***	.87***			
보상선택 유형	.09	.27**	.22*		
만족지연 능력	.24*	.26**	.30**	.26**	

\*p<.05, \*\*p<.01, \*\*\*p<.001

<표 8> 유아의 지적능력과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 (N=100)

독립변수	B	Beta	t
지능	2.87	.25	2.54*
보상선택유형1)	71.85	.21	2.13*

R<sup>2</sup> =.127  
F=7.03

1) 즉각=1, 지연=0으로 더미(Dummy) 변수화  
\*p<.05

또한, 유아의 지적능력과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만족지연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독립변수 중 지능,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만이 만족지연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능이 높을수록, 보상선택에서 지연보상을 선택할수록 만족지연시간이 더 높았다. 그리고 회귀식에 포함된 지능과 가상상황 보상선택유형은 만족지연능력에 1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유아의 보상선택유형을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 만족지연능력의 전반적 경향성을 보면, 지적능력에서는 총지능지

수가 평균적 위치에 놓여있음을 보이고 있고,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는 높은 수행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모두 표준편차 범위 안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으므로 연구대상 유아들의 총지능 및 지능의 하위영역별 지능지수 역시 각각 정상적 범위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은 지연보상 선택집단이 즉각보상 선택집단보다 만족지연능력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유아의 만족지연능력평정에서 어머니들의 평정점수는 교사들 평정점수와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Oppen(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보다 교사들이 실험상에서의 유아들의 만족지연능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해보건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교사 중 누가 더 실제의 유아의 만족지연 능력과 가까운 정확한 평정을 하였는가를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어머니와 교사 평정의 유아만족지연능력 척도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두 평정간의 상관계수가 아주 높게 나온 것은 만족지연능력 평정척도로서 어머니용, 교사용이 모두 의의가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들의 교육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 질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유아의 환경적 조건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한 사회화가 있다(Mischel, 1983)는 연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학력에 의해 달라진다(성숙자, 1999)는 연구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학력의 차이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유형에서 차이를 가져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문신(2002)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아동은 높은 자기조절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자기조절력의 부분이다(Jacobson, et al. 1996; Mischel et al., 1989)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교사평정에 의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서는 유아의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은 남아들보다 여아들의 만족지연능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성차가 보고 되어왔다. 비교적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초기연구들인 Funder & Block(1983)의 연구와 이수연(1985)의 연구에서 여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최근에 보고된 Silverman(2003)의 만족지연



능력의 성차에 관한 메타분석결과에서 또한 여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남아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바람직한 목표행동, 또는 표적행동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지연하는 만족지연능력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족지연연구에서 성차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아에게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여아에게는 충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성역할 사회화에 그 원인을 두는 해석을 해왔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의 평정에서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고 교사평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수의 남아와 여아를 같이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와 자신의 아이만을 돌보는 어머니의 평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서의 성차를 보고하지 않는 연구들(이영미, 1996; Schwarz, Schrage, & Lyons, 1983)도 있다. 이는 아마도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개념정의와 측정하는 연구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유아들의 만족지연능력의 차이가 성에 따른 사회화 외에도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유아의 지적능력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에서는 유아의 지적능력이 클수록 어머니 및 교사 평정에 의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능력이 높을수록 충동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행위를 지연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나 행동 대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는 만족지연능력은 유아의 지적성장을 의미한다(Mischel et al., 1972)는 주장과 만족지연능력에서의 지적능력의 관련성을 크게 제기하였던 최근의 연구들(McCabe, Hernandez, Lara, & Brooks, 2000; Mittal, 2001; Opper, 200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적능력의 성장이란 즉 사건을 구조화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증대된다고 해석되어왔다. 이러한 현실이해는 지연행동이라는 것이 효과적인 기능과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건임을 인식하며,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배하는 수단이 됨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능의 하위영역에 따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서도 어머니평정, 교사평정 모두에서 동작성지능, 언어성지능이 높을수록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의 발달에는 시·공간, 지각적인 정보처리능력, 운동능력이 관련된다고 보는 동작성지능과 언어능력의 발달을 반영하는 언어성지능 모두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발달에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상상황에서 보상선택 유형에 따른 만족지연능력은 지연보상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만족지연의 가상상황에서 지연보상을 선택하는 유아는 즉각보상을 선택하는 유아보다 만족지연능력 측정점수가 조금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유아의 가상상황에서의 만족지연 보상선택과 실제의 만족지연능력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을 연구한 한미란(1986)의 연구에서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보상선택과 직접적인 행동선택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보고하였고, 가상상황과 실제상황에서 보상선택에 따른 만족지연행동을 측정한 김선하(1997)의 연구에서도 가상상황과 실제상황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성인평정에 의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실험상황은 아니었지만 실재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가상상황에서의 지연보상선택과 성인평정에서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간의 정적 상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한미란의 연구나 김선하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상에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연구결과를 기초하면 유아의 가상적 상황에서 표현되는 사고방향이 곧 유아의 행동에도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3세 이전에도 나타나지만 5세 이후에 보다 안정적이다(Rodriguez, et al., 1989; Vaughn, Kopp, Krakow, Johnson, & Schwartz, 1986)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아직 만족지연능력이 발달적 과도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적 과도기의 유아들에게 만족지연상황에서의 즉각보상보다 지연보상이 보다 가치 있는 선택임이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즉각보상보다 지연보상을 선택하는 유아의 의사결정은 추후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보다 더 큰 보상을 위한 지연보상 선택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유아에게 모색된다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적능력, 보상선택유형과 만족지연능력과의 관계에서는, 우선 지능의 하위영역인 동작성지능과 언어성지능이 모두 만족지연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보상선택유형과 만족지연능력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지적능력과 보상선택유형이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총지능과 보상선택유형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지능이 높을수록, 보상선택에서 지연보상을 선택할수록 만족지연능력이 더 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능이 만족지연능력에 유의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김혜순, 2005; 정영숙, 1984; Miller, 2001;

Opper, 2003)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Bronson(2000)의 인지능력발달이 정서 및 행동통제의 발달에 유의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상에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김혜순·강기숙(2005)의 자기조절력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지능은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변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유아의 자기규제화와 내적통제발달에 유아의 지적능력이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국내 연구에서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표집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둘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관련된변인을 유아의 성, 연령, 지적능력, 그리고 가상상황에서의 보상선택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다른 관련변인들의 연구결과에 적용할 수 없다.

셋째, 유아의 지적능력이 웨슬러유아용지능검사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웨슬러지능검사가 아닌 다른 지능검사도구를 사용한 만족지연능력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넷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은 어머니와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연구방법으로 측정된 만족지연능력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만족지연능력연구에서 기존에 주로 행해졌던 실험연구법이 아닌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으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연구되어졌다는 점과 개인별 검사로 지적능력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 및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제 변인들과 연관되어 함께 연구된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에서의 측정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성인평정의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척도가 함께 연구되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이 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0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5월 15일

## 【참 고 문 헌】

- 김문신(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하(1997). 가상·실제 상황에서 4세 유아의 만족지연 능력행동과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혜(2000). 3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강기숙(2005). 유아의 인지능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7-26.
- 김혜순(2005). 유아의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이 유아의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37-747.
-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6). 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성숙자(1999).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33.
- 이경남(1996). 아동의 자기통제에 관한 고찰. *동아교육논총*, 21.
-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1996). 만족지연능력에 따른 유아의 행동관찰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1984). 욕구만족지연상황에서 보상의 제시방법이 보상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화(2003). 영아의 만족지연능력과 만족지연능력전략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간의 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란(1986). 유아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수경·이경남(1996).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6(2).
- Bronson, M. B.(2000).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5(2), 32-37.

- Flavell, J.H., Miller, P.H. & Miller, S. A.(1993). *Cognitive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reire, E., Gorman, A. E., Wessman(1980). Temporal span, delay of gratification, and children's socioeconomic statu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138.
- Funder, D.C. & Block, J.(1983). Delay gratification: Some longitudinal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98-1213.
- Funder, D.C. & Block, J.(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ency, and IQ in the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41-1050.
- Jacobson, T., Huss, M., Fendrich, M., Kruesi, M. J. P. & Ziegenhain, U.(1996). Children's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Longitudinal relation to mother-child attachment. *Journal of Generic Psychology*.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McCabe, Hernandez, Lara, & BrooksGunn.(2000). Assessing Preschoolers' Self-Regulation in Homes and Classrooms: Lessons from the Field. *Behavioral Disorders*, 26(1), 42-52.
- Melikian, L.(1959). Preference for delayed reinforcement: An experimental study among Palestinian Arab refuge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81-86.
- Miller, F. Kathryn.(2001). Parenting, *Child Regulation and Child Functioning*: Tests of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Mischel, W., Ayduk, O(2002). Self-Regulation in a Cognitive-Affective Personality System: Attentional control in the service of the self. *Self and Identity*, 1, 113-120.
- Mischel, W. & Baker, N.(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s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1, 254-261.
- Mischel, W. & Ebbesen, E. B.(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2), 329-337
- Mischel, W., Ebbesen, E. B. & Zeiss, A.B.(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21, 204- 218.
- Mischel, W. & Mischel, H. N.(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7.
- Mittal, Renn(2001). *Delay of gratification in 2-3 years olds: Association with attachment, classroom behavior, personality, and tempera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Olson, S.L. & Kashiwagi, K.(2000). Teacher ratings of behavioral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A Japanese/ U.S. comparis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609-617.
- Opper, Michele. A(2003). *The role of gratification and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social, cognitive, and coping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city of university of New York.
- Rha, J. H.(1999). *Infants' emotionality and Parenting as antecedents of delay of gratification in toddlerhoo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odriguez, M. L., Mischel, W. & Shoda, Y.(1989). Cognitive person variables in the delay of gratification of older children at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58-367.
- Satsuki, Scoville(1994).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and Preschoo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Ursinus college.
- Schwarz, J. C., Schrage, J. H. & Lyons, A. E.(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ers: Evidence of the validity of the Choice Paradime. *Child Development*, 54, 620-625.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 Psychology*, 26, 978-986.
- Silverman, I. W.(2003). Gender differences in delay of gratification: A meta- analysis. *Sex roles*, Vol, 49, 9/10. November 2003. 451-463.
- Vaughn, B. E., Kopp, C. B., Krakow, J. B, Johnson, K. & Schwartz, S.S.(1986). Process analyses of the behavior of very young children in delay task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52-759.
- Wechsler, D.(1974). Cognitive and nonintellectives intelligence. In D. Wechsler, *Selected Papers of David Wechsler*, 39-48, New York: Academic Press.